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감정표현 ‘驚’에 관한 번역 양상

- 한국어 번역 작품과 영어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

양 정 순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감정표현의 종류에는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 감탄문·수사의문 등의 감정표현을 위한 문 구성, 간투사 표현, 발상태도의 부사, 문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감정표현 가운데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こころ』에 나타난 ‘驚’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驚’에 관한 번역 양상을 보면 사전에 제시한 대로의 어휘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 문에서 사용된 ‘驚’의 감정 어휘에 대해, 한국어 역에서는 대체로 ‘동사⇒동사, 형용사’, ‘부사+동사⇒동사’ ‘부사⇒부사’로 번역되었지만, 감정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어휘가 더해진 경우가 있었다. 일부 ‘명사’는 용언을 이용해 번역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번역어휘는 ‘Surprise類’ 뿐 아니라 ‘Fear類’과 ‘Sadness類’의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 역의 경우, 한국어 역에서 보였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로 ‘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be+동사의 과거분사’로 번역되었으며, ‘Surprise類’, ‘Fear類’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외에 감정 주체의 상태를 대체 표현할 수 있는 동사로 까지도 이용되는 등 매우 다양했다. 문중에 감정주체가 있는 경우의 한국어 역은 대체로 일본어 문과 일 대 일 대응 방식을 보였다. 문중에 감정주체가 없는 경우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면서도, 3인칭인 경우에는 생략된 요소가 복원 가능하도록 유도한 번역이 보였다. 영어 역을 보면, 문중에 감정주체가 있는 경우에서만 아니라, 문중에 감정주체가 없는 경우도 생략된 감정주체 및 이를 판단하는 판단주체 까지도 복원시켜 번역했다. 일본어와 한국어와 달리 주어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주제어 : 감정표현, ‘놀람’의 동사표현, ‘놀람’의 부사표현, ‘놀람’의 명사표현, 감정주체

I. 머리말

감정이라는 표현은 심리학적으로 감각이나 관념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 의지·이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의식의 주관적인 면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한다¹⁾. 일본어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언어 중에 하나²⁾라고 하는데, 이러한 감정 표현의 적절한 구사에서 일본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한다.³⁾ 또 일부 감정 표현에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⁴⁾ ‘다수 대 일 대응’ ‘일 대 영(빈자리) 대응’ ‘일 대 부분 대응’ 등의 관계가 있어⁵⁾ 번역되기 어려운 요소라고도 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번역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 및 언어 발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작가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어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실제 번역은 사전에서 제시된 바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번역 문학이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서 문학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있는데⁶⁾, 교육 재료로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표현 정리가 아니라 실제 번역에서 나타난 표현 양상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감정표현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감정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감정표현의 분류, 담화 분석, 대조 등은 다음과 같다.

-
- 1) 中村明編, 『感情表現辞書』, 東京堂出版, 1993, 12쪽.
 - 2)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194-204쪽.
 - 3) 森田良行, 『日本語の視點—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80쪽, 311쪽.
 - 4)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55-84쪽.
 - 5) 라데군디스 슈톨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101-109쪽.
 - 6) 주5)와 같음, 149-159쪽.

中村明⁷⁾는 일본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감정 표현에 대해 ‘喜·怒·哀·怖·恥·好·厭·昂·安·驚’으로 나누고, 감정 표현의 어구와 표현을 각 항목에 따라 제시했다. 泉子·K·メイナード⁸⁾는 드라마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어휘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언어 전략에 의해 실현되는 장면 상황, 시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석했다. 工藤真由美⁹⁾는 감정동사(内的情態動詞)와 감정·감각형용사에 대해 인칭과 アスペクト·テンス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 표현 체계를 분석했다. 森田良行¹⁰⁾는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감정표현의 수단으로서 ‘-は’ ‘형용사’ ‘부사’ 등의 표현 어휘를 제시했으며, 인칭과 内·外 관계를 나누어 분석했다. 김광태¹¹⁾는 일한 양언어의 오노매토피어를 통해 감정표현을 비교 분석했고, 송은미¹²⁾는 한일양언어의 감정 동사를 감정 변화 동사, 감정 상태 동사, 감정 반응 동사를 분류하고 복합동사의 구조에 대해 분석을 했으며, 고은숙¹³⁾은 일한양언어의 감정형용사문을 대상으로 문의 특징과 인칭과의 제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와 같이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는 감정 형용사, 동사, 관용구 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번역 작품을 통한 번역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泉子·K·メイナード는 감정표현의 종류로서 「悲しい」「怒り」 등의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 감탄문·수사의문 등의 감정표현을 위한 문 구성, 간투사 표현, 발상태도를 표현하는 부사, 상대방에게 호소하는 조사, 문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고는 그 중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작품으로서, 일본의 국민작가이자 근대 소설의 한 획을 그은 한국에서도 많

7) 주1)과 같음.

8)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2001, 309-313쪽.

9)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76쪽, 176쪽.

10) 주3)과 같음 12쪽, 65쪽, 76쪽.

11) 김광태, 『日韓兩言語の感情のオノマトペ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 송은미,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제30집, 2011, 173-188쪽.

13) 고은숙, 『日韓兩國語の感情形容詞文の特徴に關한一考察』 日本語學研究 제8집, 2003, 1-14쪽.

은 번역본이 있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こころ』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 『こころ』는 번역물이 많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1990년에 출판된 한국어 번역물과 영어를 모어로 한 작가의 영어 번역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비교 대조를 위해 추가적으로 동일한 작품의 다른 번역본도 참고로 했다.¹⁴⁾ 분석 대상 어휘로는 소설 『こころ』에서 나타난 ‘驚’ 감정 표현 어휘로 한다.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 공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양한 형태로 생략이 가능하고, 그 중에 인칭 생략에 의한 부분적 생략이 있다¹⁵⁾고 한다. 그런 연유로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영어의 인칭 대명사를 괄호로 치고 번역시키지 않게 한다고도 한다.¹⁶⁾ 이에 본고는 감정주체(‘驚’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가 나타난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나누고, 감정 주체에 대해 1인칭(=발화행위주체)과 1인칭이 아닌 경우(2·3인칭)로 나누어¹⁷⁾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 재료로의 접근을 위해 번역가에 의해 재구성된 감정 표현 어휘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품사와 의미 분류에 대해서도 접목하고자 한다. 감정표현 어휘는 中村明의 『感情表現辞書』에 나타난 어구편의 ‘驚’에 관한 어휘 표현을 이용하고, 그 표현이 번역 작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는지 분석한다.

14) 『마음』, 서석연 역, 범우사, 1990.

『KOKORO』, Edwin McClellan, HENRY REGNER COMPANY, 1957.

15) 牧野成一, 『空間の言語文化学』 안중환 역, 제이앤씨, 2001, 227-229쪽.

16)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41쪽.

17) 주9)와 같음 89-90쪽, 173-177쪽.

III. 문중에 감정주체가 있는 경우

1. 회화문의 경우

회화문의 경우 감정주체가 나타난 경우는 극히 적었지만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았다.

[표 1] 회화문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驚く(1)	저도	놀라다(1)	I	be surprised(1)

()의 숫자는 출현 횟수

회화문에서 감정주체가 드러난 예는 극히 적었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현상을 보였다.

(1) 「私も実は驚きました」と妹の夫も同感らしい言葉つきであった。

“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매제도 동감이라는 말투였다.

“I must say I was surprised too;” agreed my brother-in-law.

‘驚’의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가 이용된 회화문을 보면 감정 주체가 제시된 경우는 예(1)과 같았다. 예(1)은 화자인 1인칭 주체에 ‘は’보다 주관적이고 화자의 심리에 따르며 내향적 경향의 표현인¹⁸⁾ ‘も’가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역은 상대와 같음을 나타내는¹⁹⁾ ‘-도’를 이용해 일본어 문장 순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영어 역은 상대와 같음을 나타내는 ‘too’외에도, 화자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I must say’를 부가시켜 번역했다.²⁰⁾

18) 山下秀雄, 『日本のことばとこころ』, 講談社, 1986, 140쪽.

19) 이희자·이종희, 『조사어미사전』, 한국문화사, 2010, 479쪽.

20) 近藤いね子(1941)의 번역본에서는 “Yes, I was really frightened, too”로 일본어 문장과 일 대 일 대응방식으로 번역되었지만, Meredith McKinney(2010)의 번역

2. 지문의 경우

[표 2] 감정주체가 제시된 지문 속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감정주체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주어	我を忘れる (2)	나는	이성을 잃다(1) 나 자신을 잊다(1)	I	forget my own(1) forget myself(1)	
	存外(1)	나는	의외로(1)	I	be unusually(1)	
	はっと[思う](1)	나는	깜짝(놀라다)(1)	I	be stunned(1)	
	ぼかんとする(1)	나는	멍하다(1)	I	idly to(1)	
	ぼんやり(2)	나는	멍청히(1) 멍하니(1)	I	stand by foolishly(1) be vaguely(1)	
	狼狽する (1)	나는	당황하다(1)	I	be in a state of panic(1)	
	驚く(5)	나는 나도	나는, 내가	놀라다(3)	I, We	be surprised(2)
			나는	깜짝 놀라다(2)	I	be frightened(1)
			나도		I	be shocked(1)
	驚かす(5)	나는 나는 우리들은	나는	놀라다(2)	I	be surprised(3)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1)	I	be shocked(1)	
우리들은			깜짝 놀라다(1)	I	be startled(1)	
1인칭+に	意外(1)	없음	뜻밖의 일	me	what shock(1)	
1인칭+を	驚かせる(1)	나를	놀라게 하다(1)	me	have amazed(1)	
1인칭 +의+신상	色を失う(1)	●	색이바래다(1)	●	the less clear(1)	
2·3인칭 주어	驚く(1)	나는	두근거리다(가슴)(1)	I	cannot but wonder(1)	
	案外(1)	어머니는	놀랍게도-너무나(1)	my mother	be surprisingly(1)	
	存外(1)	아버지의	의외로(1)	his mind	seemed unexpectedly(1)	
	まごまごする(1)	형은	어쩔 줄 모르다(1)	my brother	seem at a loss(1)	
	あきれる(1)	선생은	어처구니없다(1)	Sensei	V+in astonishment(1)	
	驚く(1)	엄마는	놀라다(표정) (1)	she	look startled (1)	
3인칭 にとって	驚かす(1)	부인은	놀라다(-L지) (1)	she	be surprised (1)	
	案外らしい(1)	선생에게	의외인 것 같다(1)	●	be unexpected(1)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의 숫자: 출현 횟수

본에서는 “It sent a cold shiver down my spine.”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요인을 주어로 두고 ‘shiver’라는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과 같이 일본어와 다르게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역은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으며, 보편적으로 '동사⇔동사, 형용사', '부사⇔부사'로 번역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명사는 명사 외에 동사나 부사로 번역되기도 했다. 또 감정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휘가 더해지며 번역되는 모습이 보였다. 영어 역은 한국어 역에 비해 품사의 일치도가 낮았다. '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부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분사 표현을 이용한 번역이 많았다. 한국어 역은 '놀라다'의 사용이 우세했지만 '당황하다' '두근거리다' '어쩔 줄 모르다' '어처구니없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Fear類'과 'Sadness類'의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²¹⁾. 영어 역은 'fright' 'shock' 'surprise' 'startle' 'amaze' 'wonder' 등 같이 'Fear類' 'Surprise類' 등의 동사 외에도 'clear' 'wonder' 등과 같은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이 아닌 경우, 'seem' 'look' 등을 이용해 화자가 3자의 감정을 서술하는 식으로 번역되었다.

* 1인칭인 경우

- (2) それでも私はついに私を忘れる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도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시다.

But even at such a moment I could not forget my own welfare.

- (3) 私ははっと思った。今までざわざわと動いていた私の胸が一度に凝結したように感じた。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술렁이던 내 가슴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I was stunned. My heart, which had till then been so restless, seemed suddenly to freeze.

21)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58』, 2008. 127-159쪽. 'Surprise類'에 대한 표현으로서 영어는 Surprise Amazement Astonishment, 한국어는 '경악하다 놀라다 망연자실하다 망연하다 병병하다 아연실색하다 아연하다 어리둥절하다'로 제시했다. 'Fear類'에 대한 표현으로 '당황하다' '속 타다' '섬뜩하다' '뜨끔하다' 등, 'Sadness類'에서는 '어처구니없다' '기죽다' '기막히다' 등을 제시했다. 표[1]-표[6]에도 적용시킨다.

- (4) その時私はぼかんとしながら先生の事を考えた。

그때 나는 멍하니 선생을 생각했다.

I began idly to wonder about Sensei.

- (5) 狼狽した気味の私は、早速先生の所へ出掛けて、私の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参考書を聞いた。

그래서 착수와 동시에 아무 진전도 없어 당황한 나는 즉시 선생한테 가서 내가 읽어야 할 참고 서적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I was in a state of panic, and I soon rushed back to Sensei to ask what books I should read.

- (6) 私は父が私の本当の父であり、先生はまたいうまでもなく、あかの他人であるという明白な事実を、ことさらに眼の前に並べてみて、始めて大きな真理でも発見したかのごとくに驚いた。

나는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이며, 선생은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남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새삼스레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놀랐다.

And when I discovered that such were my true feelings towards these two men, I was shocked.

관용구 ‘我を忘れる’에 대한 한국어 역을 보면 일본어와 유사한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역에서는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었지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조동사 ‘can’을 더해 번역했다. ‘부사+思う’ ‘부사+する’에 대한 번역은 문의 전후관계에 따라 어휘가 선정되었다. 예(3)의 ‘思う’의 경우, 흔히 ‘思う’에서 ‘놀라다’가 연상되지는 않지만, 정보 전달에 입각하여 ‘깜짝 놀라다’로 번역했으며, 예(4)의 ‘ぼかんとする’는 ‘멍하다’라는 형용사가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영어 역을 보면, 예(3)의 경우는 ‘be stunned’, 예(4)의 경우는 ‘なにもしないで・ぼんやりと考える’의 의미인 ‘begin to idly to’ 와 같이 문 정보의 전달에 내용은 일치시켰지만 일본어 문에서 제시된 품사와는 다르게 번역되었다. 예(5)의 한국어 역은 ‘Fear類’의 반응형인 ‘당황하다’를 ‘동사의 과거 수식형’으로 일본어 문에 대응시켜 번역했지만, 영어 역은 ‘be+panic’으로 화자의 ‘Fear類’의 상태를 서술어로 나타냈다. 예(6)과 같은 복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 역은 일본어 문에서 제시된 대로 ‘나는 놀랐다’와 같이 번역되었지만, 영어 역은 ‘S+V, S+V’의 형식

으로 서술어에 해당하는 각 주체를 찾아 번역되었다.

* 2·3인칭인 경우

(7) それを受け取った母は、はたして驚いたような様子をして、わざわざ私を人のいない所へ呼び出した。

그것을 받은 어머니는 역시 놀란 표정으로 일부러 나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렀다.

My mother, to whom the telegram had been given, seemed to think it necessary to call me to a deserted part of the house before handing it to me. Needless to say, she looked quite startled.

(8) 先生はあきれたといった風に、私の顔を見た。

선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Sensei stared at me in astonishment.

예(7)(8)처럼 감정주체가 화자가 아닌 3인칭 인물에 대한 감정 표현에는, 감정 표현 어휘와 함께 추량과 추측의 표현인 ‘ようだ’나 시각적 증거인 ‘様子’ ‘-風に’라는 어휘가 이용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어 역은 일본어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문 구조로 번역되었다. 영어 역을 보면, 예(7)처럼 화자가 3인칭의 감정에 대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 관련 동사 ‘look’+ ‘startled’ 그리고, 예(8)처럼 3인칭 인물의 감정 상태로 묘사하여 번역되었다.

3. 편지문인 경우

[표 3] 감정주체가 제시된 편지문 속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驚き (1)	내가	놀라움(1)	he	shock (1)
	はっと (4)	나는	깜짝(1)	me[주어]	come as a shock to(1)
		나는	퍼뜩(2)	I	with a shock(1)
		없음 ²²⁾	후속동사(1)	I	be stricken with(1)
				I	return(1)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주어	ぼんやり(1)	나는	멍하니(1)	I	stand still(1)
	茫然として(1)	나는	어이없게도(1)	I	be+helpless+lost(1)
	ぎょっとする (2)	나는	섬뜩하다(1)	I	be frightened(1)
			가슴이 뜨겁하다(1)	I	be suspicious(1)
	へどもどする (1)	나는	어쩔 줄 모르다(1)	I	behave awkwardly(1)
	驚く(12)	나는	놀라다(3)	I	be surprised(3)
		나는	무척 놀라다(1)	I	be shocked(3)
		나는	깜짝 놀라다(2)	I	be amazed(1)
		나도, 나는	너무나 놀라다(2)	I	gasp at(1)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1)	I	discover with a shock(1)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1)	me	come as a shock to(1)
		없음 ²³⁾	깜짝 놀라다(1)	my	one's surprise(1)
없음	놀라움을 표현하다(1)	my	to one's amazement(1)		
立ち竦む(1)	나는	속만 태우고 있다(1)	I	stand still(1)	
1인칭 목적어	驚かす(2)	나를	놀라게 하다(1) 기가 죽게 하다(1)	I me	amaze(1) shock(1)
1인칭+의+ 신상	思わぬ(1)	나의	생각지도 못하다(1)	I	undreamt of(1)
아주머니는		뜻밖이다(-듯이)(1)	Okusan	seem taken aback(1)	
2·3인칭 주어	驚き(1)	K는	자세(1)	K	with composure(1)
		아주머니는	놀라다(3)	Okusan	be shocked(2)
		따님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다(2)	Okusan, she	seem surprised (2)
				she	be surprised(1)
세상은	놀라다(1)	the world	be surprisingly (1)		
3인칭 목적어	驚かす [] (2)	따님을	놀라게 하다(1)	she	be shocked(1)
		그들을	놀라게 하다(1)	them	shock(1)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의 숫자: 출현 횟수

- 22) 복문으로 이루어진 ‘私は----はっと驚く’의 일본어 문에는 있지만 한국어 역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주어가 생략된 번역본은 하나의 문장을 2개 문장으로 나누고 그 중 앞 문장에서 주어를 제시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6개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주어가 제시되었다.

[표 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역은 '동사⇨동사, 형용사', '부사⇨부사'로 번역되는 것처럼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여기에 부사표현이 더해지거나, '-지 않을 수 없다' '-지 못하다' '-감출 수 없다' 등과 같이 술어 부분의 의미가 부가되는 모습이 보였다. 선정된 어휘는 'Fear類'와 'Sadness類'의 분류에 있는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 역에서는 '부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부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 표현을 이용한 번역이 많은 것과 같이 품사의 일치도가 낮았고, 전후 관계에 따른 상황에 따라 동사 사용이 결정되어, 'frighten' 'shock · be shocked' 'be surprised' 'look startled' 'be stricken' 등 'Fear類'의 표현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이 아닌 경우, 화자는 판단 주체로 제시되거나 화자가 3자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더해 번역되었다.

* 1인칭인 경우

(9) その時の私がもしこの驚きをもって、もう一返彼の口にした覚悟の内容を公平に見廻したらば、まだよかったかも知れません。

내가 그러한 놀라움을 잊지 않고 그가 입에 담았던 각오의 뜻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The shock itself should have revealed to me my own foolishness in jumping to conclusions about K; and I should perhaps have asked myself, "But is it not possible that there is yet another meaning hidden behind his words?"

(10) 私は二人の後に茫然として取り残されました。

어이없게도,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I was left behind alone, helpless as a lost child.

(11) そうだなあと低い声で洩っています。私はまたはっと思わせられました。

어떻게 할까 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또 피땀 불길한

23) 주어가 제시된 것과 생략된 것이 반반이었는데 주어가 생략된 번역본을 보면, 어말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알리면서 서술하는 표현인 '-네' '-군' '-아'('어미조 사사전' 97쪽, 204쪽, 808쪽)가 사용되어 생략된 요소가 복원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Well, perhaps,” he said, quietly and unwillingly. Once more, I was stricken with fear.

- (12) 私は思わずぎょっとしました。私にはKがその刹那に居直り強盗のごとく感ぜられたのです。

그러자 한순간 나는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K가 절도를 하다 들키자 무서운 강도로 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I was suddenly frightened that, in desperation, K had decided to accept the fact that he was an idiot.

- (13) 初めはそれが偶然外から襲って来るのです。私は驚きました。私はぞっとしました。しかししばらくしている中に、私の心がその物凄い閃きに必ずやうになりました。

처음에는 그것이 우연히 밖에서 나를 덮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이 오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내 마음이 그 끔찍한 번쩍거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At first, it seemed to come over me without warning from the shadows around me, and I would gasp at its unexpectedness. Later, however, when the experience had become more familiar to me, my heart would readily succumb-or perhaps respond-to it;

문 구조상, 예(9)는 ‘驚’의 감정이 명사형이고, ‘ヲ格’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어 역을 보면 동사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지만 (‘もつ’≠‘잊지 않다’), 일본어 문이 제시한 대로 ‘ヲ格+동사’를 ‘-을+동사’로 번역한 것과 같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어 역에서는 감정 주체인 ‘私’ 대신에 목적어로 제시된 ‘私’의 감정이 주어 자리에 위치하여²⁴⁾, 화자는 자신이 느낀 ‘驚’의 감정 표현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번역했다. 예(10)의 ‘茫然として’의 한국어 역은 감정 주체인 ‘私’의 ‘Sadness類’의 ‘반응형’ 표현의 어휘를 이용해 번역되었지만, 어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²⁵⁾ 한편 영어 역에서는 ‘取り残された’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상태와

24) EGサイデンステッカー・安西徹雄, 『スタンダード英語講座第2巻日本文の翻訳』大修館書店, 1983, 42-43쪽.

25) 井上優, 「言語の対照研究の役割と意義」『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 国立国語研

감정인 ‘helpless’ ‘lost’가 이용되었다. 예(11)(12)의 ‘はっと’ ‘ぎょっとする’는 문 의 전후관계에 따라 어휘가 선정되어 번역되었다. 예(11)의 한국어 역은 주어 가 제시된 일본어의 기본적인 어순으로 번역되었지만, ‘はっと’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퍼뜩’, ‘불길한’이라는 어휘를 더해 번역했다. 영어 역을 보면 화자가 느낀 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was stricken’+‘with fear’로 동사의 분사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다른 영어 번역물에서는 감정의 결과를 주어 자리에 두어 번역되기도 했다.²⁶⁾ 예(12)의 ‘ぎょっとする’의 한국어 역은 ‘Fear類’의 ‘상태·반응형’ 동사와 함께, ‘그러자’, ‘한순간’을 부가시켜 번역했다. 영어 역은 동사의 분사표현을 이용해 원인과 함께 감정 주체의 감정을 표현했다²⁷⁾. 예(13)의 ‘私は驚きました’라는 한국어 역을 보면 일본어의 기본적인 어순 그대로 번역되었으며, ‘驚く’에 대응하는 ‘놀라다’ 외에 ‘그 순간’, ‘깜짝’을 더해 감정 주체인 ‘私’의 감정 표현을 강조했다. 영어 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시된 ‘Surprise類’의 분사 표현으로 번역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로 ‘あっと驚く’ ‘はっと息をのむ’라는 뜻의 동사 ‘gasp²⁸⁾’가 이용되었다.

* 2·3인칭인 경우

- (14) 奥さんのいうところを綜合して考えてみると、Kはこの最後の打撃を、最も落ち付いた驚きをもって迎えたらしいのです。
아주머니의 말을 종합해보면, K는 그 결정적인 타격을 그가 침안낼

究所 2002, 12-15쪽.

- 26) Meredith McKinney(2010)의 경우는 ““Mm, well” he muttered softly. Another shock of fear ran through me”로 번역되었는데, 놀람으로 인한 신체 작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
- 27) Meredith McKinney의 경우, ‘This startled me’ ‘This jolted me’로 번역되었는데, 감정 요인을 주어 자리에 내세워 ‘SVO’로 번역된 것처럼 모두 ‘be+동사의 과거 분사’형태로만 번역되지는 않았다.
- 28) 近藤いね子の 번역본은 ‘I was surprised, and shivered.’로 사람의 감정을 설명하고는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신체작용을 서술했지만, Meredith McKinney의 번역본에서는 ‘驚く’와 ‘ぞっとする’를 엮어 ‘my heart began to stir of----’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my heart’를 주어로 두고 ‘my heart’의 박동 양상으로 번역했다.

수 있는 가장 차분한 자세로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Saying that there was really nothing much to tell, she proceeded to describe K's reaction to the news. It would seem that K received his final blow with great composure.

- (15) するとKはすぐ友達などは一人もないと答えたので、奥さんは驚いてしまいました。

그러자 K가 그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아주머니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며 깜짝 놀라고 말 았습니다。

“But I have no friends,” he answered. Okusan was shocked. K indeed had no friends.

- (16) あなたは学校教育を受けた人だから、こういう消息をよく解しているでしょうが、世間は学生の生活だの、学校の規則だのに関して、驚くべく無 知なものです。

당신 또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 그 정도의 일은 잘 알겠지만, 세상은 학생의 생활이나 학교의 규칙 등에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편이지요。

You, being a well-educated person, are obviously well-informed about such matters, but the world in general is surprisingly ignorant about student life, academic rules, and so on.

예(14)은 3인칭 인물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때의 감정 표현에는 추량과 추측 표현인 ‘らしい’ ‘のだ’와 함께 나타났다.²⁹⁾ 예(14)의 한국어 역을 보면, ‘落ち付いた驚き’를 ‘참아낼 수 있는’+‘차분한 자세’라고 한 것처럼 어휘 선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일본어 문 전체를 보면 문 구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로 따라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침착과 자세를 나타내는 ‘composure’가 사용되었으며, 영어는 목표의 달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 한 것처럼³⁰⁾, 제 3자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추측하면서 번역했다. いね子の 경우는 calm surprise라는 2개의 어휘를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1인칭 소설에서 볼 수 있는 표현 중의

29) 주3)과 같음 72-73쪽.

30) 池上嘉彦, 『英文法を考える』 ちくま学芸文庫 1995, 149쪽.

하나처럼³¹⁾, 3인칭 인물의 ‘驚’의 감정에 대해, 예(15)에 대한 한국어 역은 ‘눈이 휘둥그래지다’와 같이 시각적 증거, 그리고 놀라는 모양의 ‘깜짝’을 더해 의미를 ‘驚き’의 근거를 더해 의미를 구체화시켜 번역했다. 영어 역은 외부 요인(청각적 정보)에 의해 생긴 ‘驚’의 감정에 대해 ‘be+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로 제3자의 예상치 못한 심리상태인 ‘was shocked’로 번역되었다.

문중에 감정주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가 제시한 문 구조에 일 대 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부가적인 표현을 더해 주체의 감정을 강조시키기도 했다. 영어 역에서는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주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이 주어로 오기도 했으며, 화자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주변 상황과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IV. 문중에 감정주체가 없는 경우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외부의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여 자신의 감정 표현에 대해 화자는 일일이 주어로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³²⁾ 또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 가능한 것은 생략가능하다고 한다.³³⁾ 이렇듯, 일본어는 문중의 구성요소가 생략가능한데 久野暲³⁴⁾는 생략된 요소는 복원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또, 堀口純子³⁵⁾는 화자가 구문법적인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것은, 생략해도 청자가 그 생략을 올바르게 복원가능 하도록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복원 가능한 단서로서 문법, 어휘, 장면 간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1) 주9)와 같음 76쪽, 176쪽.

32) 주3)과 같음 13쪽.

33) 주15)와 같음 .227-229쪽.

34) 久野暲,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103-124쪽.

35) 堀口純子, 『日本語教育と談話分析』 くらしお出版, 1997, 107-110쪽.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해 생략된 주체와 감정 표현에 대해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의 번역 양상을 서술한다.

1. 회화문의 경우

[표 4] 회화문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없음	びっくりする(1) 驚く(1)	없음	깜짝 놀라다 (1) 놀라다 (1)	you me	be amazed(1) shock(1)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의 숫자: 출현 횟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驚く’에 대한 한국어 역은 일본어가 제시한 품사와 인칭이 거의 일치했으며 ‘동사’와 ‘부사+동사’는 ‘(깜짝)놀라다’라는 하나의 어휘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역의 경우는 전후관계에 따른 상황에 따라 동사 사용이 결정되어 다소 다양성을 나타냈고, ‘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의 형식이 보였다.

(17) 今度いらっしゃるときっと吃驚しますよ、変っているんで。

이번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You will really be amazed to see how much Tokyo has changed since your last visit.

(18) いや考えたんじゃない。やったんです。やった後で驚いたんです。そうして非常に怖くなったんです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했지요. 한 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It is not a matter of what I think. It is what I have done that has led me to feel the way I do. At first, my own act shocked me. Then, I was terribly afraid.”

예(17)(18)은 감정 주체가 문중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驚’의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로서 예(17)에는 ‘吃驚(びっくり)する’, 예(18)에는 ‘驚く’가

있다. 예(17)에 대한 한국어 역은 감정주체가 생략된 채로 ‘깜짝’+‘놀라다’로 번역해 의미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³⁶⁾ 하지만, 영어 역에서는³⁷⁾ 생략된 감정 주체인 ‘You’를 제시하고, 플러스적인 기대 이상의 대단한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amaze’가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또 문장 내에서 ‘驚’의 주체인 ‘You’의 ‘驚’와 ‘驚’의 원인, 그리고 이를 보고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요소 ‘to see’가 있었다.³⁸⁾ 예(18)의 경우, 감정 주체는 생략되었지만 ‘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역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주어가 명시되지 않아도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는 필수적 성분이라도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³⁹⁾고 한 것처럼 한국어 역에서는 ‘驚く’의 주체를 일부러 추가해서 번역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어 역에서는 ‘驚く’의 원인인 ‘my own act’을 주어로 두고 ‘shock’의 결과를 주체가 받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⁴⁰⁾ 이런 형식은 다른 영어권 작가의 작품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나타났다.⁴¹⁾

36) 그 이후 출판된 7권의 번역 작품에서도 깜짝(5), 굉장히(1), 분명(1) 등을 더해 의미를 강조했다.

37) 주16)과 같음 45쪽.

38) 近藤いね子の 번역본을 보면, 일본어문과 대응하여 “You will certainly be astonished, because everything is so changed in Tokyo.”와 같이 번역된 반면, Meredith McKinney에서는 Edwin McClellan의 번역본과 같이 “You will be amazed when you see it next, at how it's changed.” 보고 판단하는 요소가 더해져 번역되는 차이가 있었다.

39)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987, 240쪽.

그 이후에 출판된 7개의 다른 출판 번역 작품에서도 모두 생략된 채로 나타났다.

40) 주3)과 같음 52쪽.

41) Meredith McKinney의 번역본에서는 “I once did something that shocked me”처럼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예다가 주어는 ‘私’의 감정 원인의 요인에 해당되었으며, 近藤いね子の 번역본에서는 “O I don't just think in this way. I have acted like this. Then I was astonished, and was terribly afraid.”와 같이 화자의 상태에 초점을 두어 번역되었다. 일본인 번역가와 주어의 특성에 다른 요소가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일본어는 자신의 눈·자신의 시점에서 모든 현상이나 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인 표현 형식을 취한다는 森田良行의 서술을 뒷받침한다.

2. 지문의 경우

[표 5] 감정주체가 생략된 지문 속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감정주체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없음	脈が止まる(1)	없음	맥박이 끊어지다(1)	I	feel+a strong sense (1)
	案外に(2)	없음	의외로(2)	me	what surprised (1)
				◎	There is no on (1)
	存外(2)	없음	의외로(2)	◎	be surprisingly (1)
				We	seem to be surrounded by(1)
	驚く(1)	부인은	놀라다(눈)(1)	She	seem surprised (1)
	驚く(1)	어머니가	놀라다(1)	She	how surprised (1)
驚かす ⁴²⁾ (1)	없음	놀라다(1)	I	사람+be surprised (1)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의 숫자: 출현 횟수

[표 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역은 감정 주체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으며, 품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동사⇨동사’, ‘명사+に’, ‘부사⇨부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는 일본어만큼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⁴³⁾, 감정 주체가 3인칭인 경우는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영어 역에서는 생략된 감정 주체 및 이를 판단하는 화자의 입장도 서술하면서 번역되었고, ‘형용사⇨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부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 표현을 이용한 번역이 많은 것처럼, 일본어와의 품사의 일치도가 낮았고, 전후 관계에 따라 동사 사용이 결정되었다. ‘驚’에 대한 한국어 역의 동사는 ‘놀라다’가 중심이 되어 사용된 것에 반해, 영어 역에 이용된 동사는 ‘surprise’ 외에 ‘feel+감정’ ‘be surrounded by’ ‘There is’ 등과 같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42) 다른 번역본에서는 3인칭 감정 주체가 제시된 쪽이 많았고, 없는 경우는 생략된 요소가 복원가능 하도록 다른 인물을 제시했다.

43) 月本洋, 『日本人の脳に主語はいらない』, 講談社, 2008, 163-165쪽.

- (19) 宅へ帰って案外に思ったのは、父の元気がこの前見た時と大して変わっていない事であった。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의외로 아버지의 병세는 지난번에 찾아뵈었을 때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What surprised me when I got home was that my father's health seemed not to have changed much during the months I had been away.
- (20) 大通りから二丁も深く折れ込んだ小路は存外静かであった。
 큰길에서 200미터쯤 깊이 꺾어 들어 온 좁은 골목은 의외로 조용했다.
 The house was some distance from the main road, and we seemed to be surrounded by a complete calm.
- (21) ことにその内容が特別の用件を含んでいなかった時、驚かされた。
 특히 그 내용이 특별한 용건을 담고 있지 않아서 놀랐다.
 I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I read it, for it seemed to have been written for no particular purpose.
- (22) それにしてもこの前父が卒倒した時には、あれほど驚いて、あんなに心配したものを、と私は心のうちで独り異な感じを抱いた。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그렇게도 놀라서 슬픔에 잠겼던 어머니가 아니신가. 나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I remembered, a little uneasily, how surprised and frightened she had been when my father had fainted.

감정주체가 생략된 문을 보면 예(19)(20)(21)와 같이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화자가 외부의 세계를 느끼고 판단하는 표현과 예(22)와 같이 화자가 제3자를 관찰하여 제 3자의 감정을 서술한 표현이 있었다. 한국어 역을 보면 예(19)(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감정 표현에 대해 ‘이외로’의 사용이 많았다. 예(22)과 같이 감정 주체가 3인칭인 경우는 대체로 복원시켜 번역했다⁴⁴⁾. 영어 역에서는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략된 각 주체를 제시하면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어 번역되었다. 문의 구조에 있어서도 일본어 문에 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예(19)의 경우

44) 예21)에 대한 한국어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7권 가운데 6권에서 ‘어머니’가 제시되었다.

를 보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驚’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었고, 예(22)와 같이 ‘I remember+감탄문’을 사용해 3인칭 인물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또,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에 대해 영어 역은 예(20)과 같이 예상과 다른 사태에 대한 외부세계에 대해 화자가 처한 상태로 서술하면서 번역했다.

3. 편지문인 경우

[표 6] 감정주체가 생략된 편지문 속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감정주체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회화: 없음	不慮 (1)	없음	뜻하지 않은(1)	●	Who could have foreseen(1)
	驚く (1)	없음	놀라다(1)	●	have happened(1)
지문: 없음	驚き (1)	없음	놀라움(1)	her	shock(1)
	驚きもする(1)	없음	놀라다(1)	I	be surprised (1)
	存外(1)	없음	예상외로(1)	●	be surprisingly(1)
	案外(1)	없음	이외로(1)	I	discover+expect(1)
	案外な(1)	없음	예상외로(1)	my	to one's surprise(1)
	動搖(1)	없음	생각을 바꾸다(1)	I	could not decide(1)
	不意に (1)	없음	어느 순간(1)	my	직접적인 번역 없음 ⁴⁵⁾
	驚く (3)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1)	I	be shocked(1)
놀라다(1)			I	be surprised(1)	
없음		(너무나) 놀라다(1)	I	marvel at(1)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의 숫자: 출현 횟수

[표 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역은 보편적으로 ‘동사⇨동사’, ‘부사⇨부사’로 번역된 것처럼 일본어와 거의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편지문의 형식에서 내레이터인 화자는 자기 시점에서 감정을 판단하고 서술해나갔는데 한국어 역 역시 이런 현상이 있었다. 영어 역에서는 한

45) 近藤いねこの 번역본과 Meredith McKinney의 번역본에서는 “suddenly”가 제시되었다.

국어 역과는 달리 감정을 느끼는 주체 및 주어조차 생략된 일본어 문에 대해 생략된 감정 주체 및 이를 판단하는 화자의 입장도 복원시켜 번역되었다. ‘부사⇒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부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 표현을 이용한 번역이 많은 것과 같이 품사의 일치도가 낮았고, 전후 관계에 따른 상황에 따라 동사 사용이 결정되었다. ‘驚’에 대한 한국어 역은 ‘예상외이다’ ‘뜻하지 않다’ ‘놀라다’로 번역되었으며, 영어 역에 이용된 동사는 ‘frighten’ ‘shock’ ‘surprise’ ‘marvel’ 외에도 ‘can foresee’ ‘discover’ ‘decide’ 등과 같이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23) 蒼い顔をしながら「不慮の出来事なら仕方が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と慰めるようにいってくれました。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뜻하지 않은 사건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하고 나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Her face still pale, she said gently: “You mustn't blame yourself. Who could have foreseen such a thing?”

(24) 私は顯で隣の室を指すようにして、「驚いちゃいけません」といいました。

나는 턱으로 옆방을 가리키는 시늉을 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I then said to Okusan, almost in a whisper: “A terrible thing has happened.”

예(23)(24)은 편지문 내에서도 회화문 형식으로 제시된 경우인데, 예(22)의 ‘不慮’에 대한 한국어 역을 보면, ‘뜻하지 않다’로 번역된 바와 같이 일본어의 명사 표현에 대해 용언을 이용해 번역되는 사례가 있었다.⁴⁶⁾ 그리고 의미 전달을 위한 단서로서 ‘아주머니는’과 ‘나를’이라는 표현을 더해 생략된 요소를 복원시키며 번역했다. 한편 감정이 묘사되는 어휘 뿐 아니라 감정 표현을 위한 문 구조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23)에 대한 영어 역은 수사적인 문문의 형식을 빌려 ‘驚’에 대한 감정을 전했다⁴⁷⁾. ‘her face’ ‘she say’

46) 2권의 번역본에서만 ‘불의의 사고’라고 번역되었으며, 나머지는 형용사, 동사 등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47) Meredith McKinney의 번역본에서도 “What could you possibly have done about something so unforeseen?”와 같이 近藤いね子の “It is a sudden unexpected

‘you blame’처럼 상태 및 행위까지 구체화시켰을 뿐 아니라 생략된 요소를 모두 복원시켜 번역했다. (24)에 대한 한국어 역을 보면 일본어 문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문형과 문의 기능 뿐 아니라, 동사의 사용도 일 대 일 대응 방식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영어 역은 일본어 문에서 제시된 ‘시제 표현’과 ‘문의 기능’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驚’을 느끼는 주체에 해당된 ‘奥さん’이 동작주가 아니라, ‘奥さん’의 감정의 원인을 주어 자리에 두어 번역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25) しかしその顔には驚きと怖れとが、彫り付けられたように、硬く筋肉を攫んでいました。

그러나 그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Despite her gentleness, however, I could see unmistakable signs of fear and shock in her eyes.

(26) お嬢さんは学校へ行く上に、花だの琴だのを習っているんだから、定めて忙しかろうと思うと、それがまた案外なもので、いくらでも時間に余裕をも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した。

따님은 학교에 가는데다가 꽃꽂이와 거문고까지 배우고 있어서 틀림없이 바쁠 거라 생각되었는데, 예상외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But to my surprise, Ojosan, who not only attended school but was studying flower arrangement and the koto as well, never seemed busy either.

(27) 私は日中の光で明らかにその迹を再び眺めました。そうして人間の血の勢いというものの劇しいのに驚きました。

나는 대낮의 환한 빛을 통해 분명히 그 흔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가 그토록 세차게 용솨음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I looked at the stains again, this time in daylight; and I marveled at the power of human blood.

accident, and no one is to be blamed.” 일 대 일 대응 방식 번역과는 다른 발상을 나타냈다.

감정주체가 생략된 문을 보면 예(25)과 같이 화자가 제3자를 관찰하여 제3자의 감정을 서술하거나 예(26)(27)와 같이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화자가 외부의 세계를 느끼고 판단하는 표현이 있었다. 예(25)는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제3자를 보고 화자가 판단한 문으로, 한국어 역은 감정을 판단하는 판단주체나 감정 주체 없이 일본어 어순과 유사하게 번역되었지만, 영어 역에서는 눈을 통해 드러나는 ‘驚’의 표식인 ‘signs’을 보고 판단하는 ‘I+could see’와 놀람을 느끼는 감정 주체인 ‘her’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나갔다. ‘案外’는 예상과는 엇갈리는 결과에 해당되는데, 한국어 역은 ‘案外な’의 품사와는 다르게 ‘案外’의 심리를 나타내는 주체를 생략된 채로 ‘案外に’처럼 번역되었다. 영어 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 나타내는 ‘surprise’와 생략된 ‘案外’의 감정주체인 ‘I’에 대해 ‘to my surprise’라고 제시해 감정 주체의 상태를 설명했다. 예(27)를 보면, 문의 전후 관계에 따라 ‘驚く’의 주체는 ‘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역은 ‘너무나’만 추가되었을 뿐, 문의 구조는 유사하게 되었으며, 영어 역은 ‘S+V and S+V’의 형식으로 생략된 감정 주체를 나타냈다. 또 피가 솟는 것을 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는 일이 아닌 점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인 ‘marvel’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생략된 경우를 보면, 한국어 역은 대체로 일본어가 서술한 대로 감정 주체 없이 일본어 문과 유사한 문 구조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감정 주체가 3인칭이고, 생략된 요소가 완전하게 복원될 가능성이 약할 경우는 3인칭의 감정 주체나 또 다른 등장인물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영어 역은 생략된 감정 주체를 모두 복원시켜 번역되었으며, 주어는 반드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도 해당되었다.

V. 맺음말

감정표현의 종류에는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 감탄문·수사의문 등의 감정표현을 위한 문 구성, 간투사 표현, 발상태도의 부사, 문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감정표현 가운데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こころ』에 나타난 ‘驚’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을 ‘품사’ ‘주어처리’ ‘의미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驚’에 관한 번역 양상을 보면 사전에 제시한 지시적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 문에서 사용된 ‘驚’의 감정 어휘에 대해, 한국어 역에서는 대체로 ‘동사⇨동사, 형용사’, ‘부사+동사⇨동사’ ‘부사⇨부사’로 번역되었지만, 감정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어휘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명사’는 용언을 이용했으며, ‘동사’가 형용사로 번역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번역어휘는 ‘Surprise類’ 뿐 아니라 Fear類’과 ‘Sadness類’의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 역의 경우, 한국어 역에서 보였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로 ‘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be+동사의 과거분사’로 번역되었으며, ‘Surprise類’, ‘Fear類’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외에 감정 주체의 상태로 대체 표현할 수 있는 동사까지도 이용되는 등 매우 다양했다.

문중에 감정주체가 있는 경우, 한국어 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가 제시한 문에 일 대 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문중에 감정주체가 생략된 경우 또한, 한국어 역은 대체로 일본어가 서술한 대로 감정 주체 없이 일 대 일 방식으로 번역되었지만, 감정 주체가 3인칭이고 생략된 요소가 완전하게 복원될 가능성이 약할 경우는 3인칭의 감정 주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어 문의 감정주체의 생략 유무와 관계없이, 영어 역은 감정 주체 및 판단 주체 까지도 복원해서 번역하는 경향이 보였다.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주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이 주어로 오기도 했으며, 화자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주변 상황과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驚’이외의 감정 표현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987.
- 라데군디스 슈틀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 이희자·이종희, 『조사어미사전』, 한국문화사, 2010.
- 고은숙, 「日韓兩國語의 感情形容詞文의 特徵에 關한 一考察」 日本語學研究 제8집, 2003.
- 김광태, 『日韓兩言語의 感情의 오노매토피어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 송은미,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제30집 2011.
-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58, 2008.
- 池上嘉彦, 『英文法を考える』 ちくま学芸文庫 1995.
-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らしお出版, 2001.
- 井上優, 「言語の対照研究の役割と意義」 『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 国立国語研究所 2002.
-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41쪽.
-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194-204쪽.
-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 久野暲,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 月本洋, 『日本人の脳に主語はいらない』, 講談社, 2008.
-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 東京外国語大学, 1974.
- 中村明編, 『感情表現辞書』, 東京堂出版, 1993.
- 堀口純子, 『日本語教育と談話分析』 くらしお出版, 1997.
- 牧野成一, 『空間の言語文化学』 안중환 역, 제이앤씨, 2001.
- 森田良行,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1989.
- _____,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 山下秀雄, 『日本のことばとところ』, 講談社, 1986, p.140.
-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EGサイデンステッカー・安西徹雄, 『スタンダード英語講座第2巻日本文の翻訳』 大修館書店, 1983.
- F.ウンゲラ-/HJシェミット, 『認知言語学入門』 池上嘉彦 외 역, 大修館書店, 1998.

참고자료

- 서석연 역, 『마음』 범우사, 1990.
- 박유하 역, 『마음』 웅진출판, 1995.
- 오유리 역, 『마음』 문예출판사, 2002.
- 박순규 역, 『마음』 인디북, 2002.
- 김성기 역, 『마음』 이레, 2008.
- 이지선 역, 『마음』 책만드는 집, 2012.
- 김활란 역, 『마음』 더클래식, 2014.
- 김숙희 역, 『마음』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
- 近藤いね子, 『KOKORO』 KENKYUSYA, 1941.
- Edwin McClellan, 『KOKORO』 HENRY REGNER COMPANY, 1957.
- Meredith McKinney, 『KOKORO』 PENGUIN BOOKS, 2010.

❖ ABSTRACT

A study about the aspect of translation on
'Kyo(驚)' in novel 『Kokoro』
-Focusing on novels translated in
Korean and English-

Yang, JungSoon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s are comprised of vocabulary that describes emotion and composition of sentences to express emotion such as an exclamatory sentence and a rhetorical question, expressions of interjection, adverbs of attitude for an idea, and a style of writing. This study is focused on vocabulary that describes emotion and analyzes the aspect of translation when emotional expression of 'Kyo(驚)' is shown in 『Kokoro』. As a result, the aspect of translation for expression of 'Kyo(驚)' showed that it was translated to vocabulary as suggested in the dictionary in some cases. However, it was not always translated as suggested in the dictionary.

Vocabulary that describes the emotion of 'Kyo(驚)' in Japanese sentences is mostly translated to corresponding parts of speech in Korean. Some adverbs needed to add 'verbs' when they were translated. Different vocabulary was added or used to maximize emotion. However, the corresponding part of speech in English was different from Korean. Examples of Japanese sentences expressing 'Kyo(驚)' by verbs were translated to expression of participles for passive verbs such as 'surprise' 'astonish' 'amaze' 'shock' 'frighten' 'stun' in many cases. Idioms were also translated with focus on the function of sentences rather than the form of sentences. Those expressed in adverbs did not accompany verbs of 'Kyo(驚)'. They were translated to expression of participles for passive verbs and adjectives such as 'surprise' 'astonish' 'amaze' 'shock' 'frighten' 'stun' in many cases.

Main agents of emotion were shown at the first person and the third person in simple sentences. Transla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when a main agent was the first person showed that the fundamental word order of Japanese was translated as in Korean. However, adverbs of time and adverbs of degree were added. The first person as the main agent of emotion was positioned at the place of subject when it was translated in English. However, things or causes of events were positioned at the place of subject in some cases to show the degree of 'Kyo(驚)' which the main agent experienced. The expression of conjecture and supposition or a certain visual and auditory basis was added to translate the expression of emotion when the main agent of emotion was the third person. Simple sentences without the main agent of emotion showed that their subjects could be omitted even if they were essential components because they could be known through context in Korean. These omitted subjects were found and translated in English. Those subjects were not necessarily human who was the main agent of emotion. They could be things or causes of events that specified the expression of emotion.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ons, verbs of 'Kyo(驚)', nouns of 'Kyo(驚)', adverbs of 'Kyo(驚)', the main agent of emotion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